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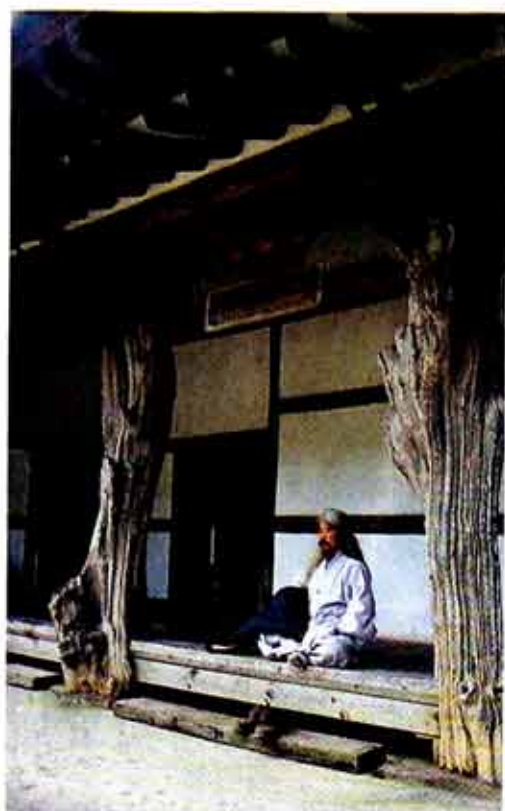
# 천연 모과나무 기둥 '파격'

## 가람의 장면들

### 화엄사 구층암 승방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모과나무를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한 화엄사 구층암 승방. 인공적인 건축물은 자연의 일부로, 화엄이라는 한국고유의 자연주의적 건축관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사용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일본 건축에서는 목조 건축의 부재를 흑목조와 백목조로 구분한다. 백목조란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다듬은, 흔히 볼 수 있는 부재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 흑목조란 나무껍질을 벗기지 않고, 생나무 그대로 잘라서 기둥이나 보에 쓰는 방법이다. 흑목조에 대해 일본인들은 그들의 자연친화적 건축의 특성을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흑목조가 뜻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를 인공적인 건물 안에 살렸다는 의미다.

그러나 구층암 승방의 모과나무 기둥은 그 차이가 다르다. 자연의 일부를 삼입한 것이 아니라, 모과나무가 자라서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된다는, 자연이 곧 건축이 된다는 근원적인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확대 해석을 한다면, 나무의 밑둥은 기둥이요, 줄기는 보가 되며, 이파리의 잔가지는 석가래와 지붕이 된다. 인공적인 건축물은 곧 자연의 일부요, 확장이라는 자연주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집이다.

나무라는 재료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아름다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건축재료다. 그래서 구할 수만 있다면,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선호하는 것이 목조건축이었다. 한국건축의 주된 재료가 나무인 까닭은 우리나라 산에 양질의 나무들이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연을 빌려온다는 생각에서 그 사용량을 최소화하려 했고, 가급적 인공적인 가공도 최소로 유지했다. 휘어진 나무는 휘어진 대로 사용했고, 복시면서 자란 나무는 건물의 북쪽에, 남사면에서 따뜻한 햇빛을 받고 자란 나무는 건물 남쪽에 사용했다. 나무란 건축재료 가운데 유일한 생명체였으며, 생전의 생장환경과 가장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재료의 수명을 오래할 수 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을 빌려온 작은 대가라고 생각했다. 구층암의 모과기둥은 그 자연주의적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소중한 예다.

## 다듬지 않아 결·옹이 생생

## '자연도 하나의 건물' 상징

## 민화·동물조각 서민풍 물씬

지리산의 깊은 산 위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본질에 비해 방문하는 이들은 드물다. 그리고 이들의 건축적 특성 역시 노출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층암은 본 절에서 불과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 건축적 내용도 대단하지만, 그 참다운 가치를 알아주는 이들이 별로 없다. 화엄사 암자 가운데 옛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구층암에는 천불보살과 수세전, 그리고 두 채의 요사채만 있을 뿐이다. 천불전 안에는 작은 불상 1000구가 봉안되어 장관을 이루며, 지붕 밑에는 거북이와 토끼의 실화를 묘사한 민화풍의 조각상들도 장식되어 있다. 그 앞 대방채에도 곳곳에 사자상이나 코끼리상들이 조각되어 서민적인 냄새가 물씬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대방채를 이루는 전방기둥이다.

백년은 넘은지만 큰 모과나무를 싹둑 베어서 전혀 다듬지 않고 생긴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했다. 나뭇가지의 흔적 뿐 아니라, 울퉁 패인 나무의 결과 옹이까지도 생생하다. 밑둥은 하나지만 위는 두 갈래로 갈라진 Y자형 기둥이 지붕물을 받치고 있다. 휘어진 기둥이나 부분적으로 다듬지 않은 기둥은 드물지 않게 나타나지만, 이처럼 철저하게 손을 대지 않은 기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한 예는 구층암 승방 뿐이다.

모과나무는 소나무와 달라서 쉽게 굽어지지 않는다. 오래된 모과나무라 해도 그 굽기가 가늘기 때문에, 다른 목재처럼 다듬어 사용하려면 너무 가늘어져 건축재료로는 적합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과나무를 생긴 그대로 기둥으로



## 불교조형물에 나타난 전통 문양

원 / 태극

## '원'은 깨달음의 표상

심우도·선화에 자주 등장 '불성' 암시

### ■원상(圓相)

기하학적으로 볼 때 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점의 연속이다. 원은 진리의 완성, 순환의 영원성, 조화와 관용, 우주적 합일과 풍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 만유의 근본자리로 표현되기도 하고, 우주 그 자체로도 표현된다. 또 불보살의 마음자리, 일체 중생이 갖추고 있는 불성자리를 원으로 나타낸다. 불교 용어인 원만(圓滿), 원각(圓覺), 원통(圓通), 또는 원공(圓空)의 개념에도 이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원상은 사찰의 벽화나 선화 등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사찰에 가보면 지붕 각각(台角) 벽의 둥근 원 속에 작은 원 세 개가 삼각형이나 역삼각형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원이삼점(圓伊三點) 또는 이자삼점삼보(伊字三點三寶)라 한다. 이 원이삼점의 점들은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고, 앞과 뒤를 따로 두지 않는 전체적인 응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를 불법승(佛法僧) 삼보의 상징으로 여긴다.

선종에서는 원상을 진리의 표상으로 삼는다. 깨달음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심우도(心牛圖) 10폭 가운데 8번째인 (인우구만도(人牛俱斷圖))에 원상이 나타난다. 화면 가득 탐민 원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소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망각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객관적인 존재로서의 소를 잊었으면 주관적인 존재인 동자 자신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원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이전의 상태, 즉 원공의 상태를 상징하는데, 이같은 경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부처님 가르침의 바퀴인 법륜(法輪)도 이 원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둥근 원이 굴러가듯 법의 바퀴도 영원히 돌고 돈다는 것이다.

## 우주만물 근원 '태극'

원융조화 상징...불교서 받아들여

### ■태극

태극의 도형과 이념은 고대로부터 우리민족에게 전통적으로 쓰여 왔다. 태극은 존재와 가치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 실체, 또는 상호 대립적인 개념이 생겨나기 이전의 원용 상태를 표상한다. 절대 평등과 원용의 조화가 태극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다. 태극은 원상 속에 양과 음이 위아래로 상대하고 있는 형태다.

태극이라는 용어는 주역에 나오지만 중국에서 태극문양이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은 11세기 송나라 때 주돈이가 지은 <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부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7세기 초반(628년)에 건립된 경주 감은사지(感恩寺址)의 석각 가운데 태극도형이 나타나고 있다. 태극도형이 중국에서 전래되기 이전부터 태극의 사상을 일찍부터 이해하고 그것을 장식문양으로 활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전통이 조선시대로 이어져 사찰 곳곳에 태극문양이 표현되었다. 사찰 돌계단의 소켓 돌이나 건물 서까래의 마구리, 문의 궁창 등에도 태극문양이 장식되어 있고, 사찰 경내 사방이 대문이나 벽체에도 나타난다.

양산 통도사의 관음전에는 법당 문의 궁창에, 외성 교문사 우회루에는 모든 서까래의 끝에 태극문양이 그려져 있다. 해남 대흥사 경내에 있는 사당 표충사의 대문에도 태극문양이 크게 그려져 있다.

이은자 기자(ejee@buddhapia.com)



◇경주사 석주에 조각된 '원이삼점', 불법승 삼보의 상징이다.



◇순천 송광사 승보전 '심우도'의 원상, 소와 사람 모두 공(空)으로 돌아갔다는 깨달음을 원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양주 화엄사지 돌계단 소켓돌 양쪽에 음각되어 있는 태극문양.



◇통도사 관음전 궁창의 태극문양.

## 인터넷 불교쇼핑 미미몰 연말연시 특선 상품전

www.mahamall.co.kr 02)732-1522

### 108 나한단주



신록송이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연주 한 알에 8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가격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 요 건강벨트



내용물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플레, 시가력, 충전기 / 배터리 (휴대용 우입시)

가격 가장음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 삼보죽염 세트



할매가이어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민간문화재단인 호천선남에서 기술공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600g / 가격 105,000원

### 죽 비



부리죽비대 30,000원, 일반죽비(2개 세트) 18,000원, 부리죽비(죽) 25,000원, 부리죽비(죽) 12,000원, 부리죽비(죽) 20,000원, 죽비세트·부리(대)죽비(소) 일반형 53,000원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cm 이상 들어기며(일반형 이상) 타 재료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그무덤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 신행수첩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예쁜, 한눈 얹혀, 의례, 선물까지 신행생활과 신기 일대기를 오일기록

색상 흑색검정 / 가격 25,000원

### 연꽃 불자시계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존엄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맞춤인 시계. 남성용, 여성용 각각 119,000원

### 만다라 옥침



양손에 쥐고 움직여 주면 손바닥에 경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고통없, 중풍, 치매 등 고질적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격 30,000원

### 합천 전통 한과



한과 동과구 (2.75kg) 95,000원, 한과 잔치말 2kg(9kg) 22,000원, 한과 바구니대 (1.8kg) 80,000원, 한과 잔치말 3kg(9kg) 30,000원, 한과 바구니부 (1.5kg) 60,000원, 한과 잔치말 4kg(1.5kg) 45,000원, 한과 오동나무 (1.8kg) 90,000원

경남 합천의 특산물인 함경소리가 남남이제 물리는 가마산 지역에서 제 배한 꿀꿀과, 제 꿀꿀 꿀꿀 꿀꿀을 사용하여 현대인의 건강과 맛있게 즐겨주세요 우리 전통의 과자입니다

### 경 상



제품 A8(느릅나무) 원진원목, 규격 72cm(가로) x 34cm(세로) x 32cm(높이), 가격 85,000원

가격 85,000원

### 사이버 에밀레 증



송신대학교 전자공학과 해명진 교수가 원단 공학 기술로 개발 성공한 원용 오물은 신종의 풍수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 -정사각형 에밀레증 210,000원, 팔각형 에밀레증 250,000원

### 울 문양 실크스카프



소재 : 100% 실크(트림) / 색상 : 아이보리, 네이비 / 규격 : 90cm x 90cm / 가격 30,000원

### 참선명상상석



일 반 30,000원, 실용신안 1998-025009, 숯기반 30,000원, 의장등록 제 14387 호, 향토반 30,000원,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 백화향 선물세트



백화향 + 신지담향 + 천안목향 + 향긋이 / 가격 50,000원

### 와 발 우



항토로 만든 수형자의 그릇, 가격 : 4kg 60,000원 (무게 2.7kg), 2kg 30,000원 (무게 1kg)

### 라 면 기



계묘마늘 상판이 함유되어 음식물 소화를 지원시키고 음식물에서 나는 냄새와 맛을 순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면기 4개 세트 / 가격 18,000원